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⑨ 강화 전등사

▶한줄 요약
불교 탄압에서도 추송 스님 같은 법력을 가진 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다면, 그때 그러한 시대 분위기가 은행나무를 통해 전해졌을 수 있다.



불교 탄압에 은행나무마저 열매 안 맺었다

성문(城門)이 산문(山門)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단 정족산 삼랑성(三郎城) 안에는 전등사(傳燈寺)가 있다. 이 절은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에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로 창건하였다. 물론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1282년(고려 충렬왕 8)에 왕비인 정화궁주가 옥등(玉燈)을 시주하였기에 전등사로 사명이 바뀌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다. 오히려 불법(佛法)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전해진다는 의미에서 전등사로 보는 것이 어떠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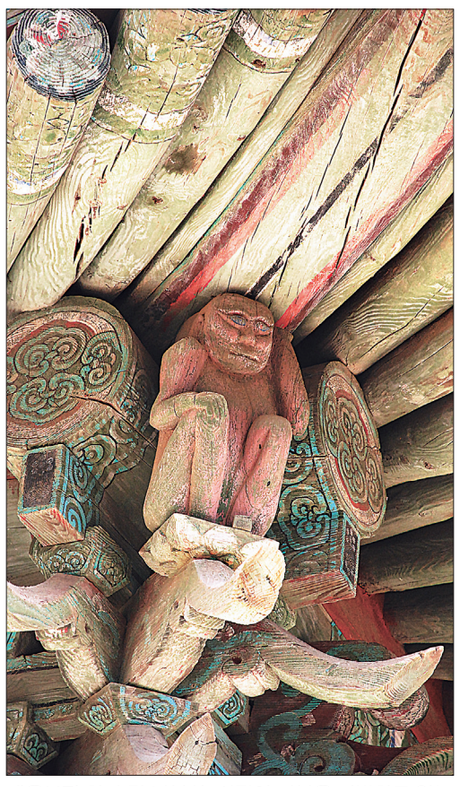
삼랑성의 원래 이름은 정족산성(鼎足山城)이다. 세 발 달린 솥을 엎어놓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랑성으로 더 많이 부른다. 단군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정족산에 산성을 쌓으려 하였다. 성 쌓기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에 단군은 세 아들에게 성 쌓기를 의논하였다. 세 아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시작하고 보니 전국에서 체격 좋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타나 함께하였다. 그들은 주변 산에 있는 큰 바위를 주먹으로 쪼개 적당한 돌로 만들어 이쪽 산으로 던졌다. 그 돌은 하나하나가 들어맞아 성벽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성이 완성되었다. 단군은 장사들에게 두터운 인사를 베풀고 세 왕자에게는 정족산의 봉우리를 각각 하나씩 안겨주고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세 왕자가 성을 쌓고 세 봉우리를 지킴으로 이 성을 삼랑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등사에는 일주문 등의 산문(山門)이 없다. 삼랑성의 동문과 남문이 전등사의 산문인 셈이다. 성문을 통해 300m쯤 약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대조루다. 대조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이 있다. 관음전, 약사전, 명부전, 종루, 삼성각, 정족사고 등이다. 무엇보다 근래 지은 무설전은 꼭 참배하기를 권한다. 그곳에는 오늘날 여자 아이돌 가수를 닮은 보살상을 모셨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범종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가령 한국 종은 꼭대기 부분 장식인 용뉴에 용 한 마리가 있지만, 전등사 범종은 두 마리다. 중국 종이기 때문이다. 원래 1097년 하남성 백암산 숭명사에 봉안된 범종이었다. 여기엔 사연이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전등사 주지스님은 일제가 무기로 만들고자 빼앗아 간 전등사 범종을 찾고자 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천 항구를 뒤지고 다녔다. 그때 누군가가 부평 군기창 뒷마당에 큰 동종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가서 보니 전등사 종은 아니었다. 스님은 범종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전등사로 운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 종이 몇 있으나 그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는다.



전등사 범종. 국내에 있는 중국 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는다.



대웅보전 처마 밑 나부상. 사람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전등사 은행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은행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대웅보전 처마 밑 조각상은?

'코끼리를 생각하지마'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전등사 대웅보전 처마 밑의 조각상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전등사 홈페이지에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다른 각도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급할 수밖에 없다.

대웅보전 처마 밑에는 독특한 조각상이 있다. 누군가 벌거벗은 채로 쪼그리고 앉아 손과 머리로 추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 때문에 벌거벗은 여인으로 보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있다. 이는 대웅보전 불사를 맡은 도편수와 아랫마을 주막 주모 이야기다. 주모와 정분이 난 도편수는 불사를 마치면 주모와 혼인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번 돈을 모두 주모에게 맡겼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 갈 무렵 주모는 맡겨 둔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화가 난 도편수는 처마의 네 모퉁이에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여인상을 만들어 놓았다. 주모가 대웅보전 불경 소리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뜻에서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혹은 울분을 참지 못한 도편수가 앙갚음하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거운 처마를 들고 있게끔 형벌을 가했다고도 한다.

단군 세 아들이 쌓은 정족산성
일주문 대신 동문 · 남문이 산문
은행 20가마 공물 강요한 관가
3일 기도 이후 괴롭힘 사라져

절집 문화를 아는 이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당 불사 과정은 또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불사에 임한다. 그런데 어찌 도편수가 주막집을 드나들면서 주모와 정분이 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자비를 강조하는 절집에서 앙갚음으로 만든 나부상을 법당 처마 밑에 올려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조각상을 사찰을 수호하는 신장(神將)으로 본다. 가령 법주사 팔상전에도 이와 비슷한 조각상이 있다. 팔상전 처마 밑에 있는 형상도 옷을 반쯤 벗고 있으며, 쪼그려 앉아 있다. 이를 나찰이라 한다. 나찰은 본디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귀로 아주 빠르고 포악하며 공중을 날아다닌다. 그러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장의 역할을 맡았다. 어떤 이는 원숭이로 본다. 불이 났을 때 빨리 움직여 불을 꺼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맺지 않는 은행나무

경내에는 수령이 600여 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각각 노승나무, 동승나무 혹은 암컷, 수컷으로 불린다. 은행나무는 본래 암나무와 수나무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열매(은행)를 맺는다. 그런데 전등사의 은행나무는 꽃은 피어도 은행은 맺지 않는다. 사연은 이렇다.

불교 탄압이 심했던 조선 후기, 철종(재위 1849~1863) 때다. 전등사에서는 해마다 공물로 은행 열 가마를 바쳤다. 그런데 어느 해 관가에서 은행 스무 가마를 요구하였다. 이 지시를 듣게 된 동자승은 노스님에게 알렸다.

"스님, 관가에서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허허, 참으로 난감한 일이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선 안 되느니라."

이렇게 타이른 노스님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등사 은행은 열 가마가 최대 수확량이었다. 다른 곳의 은행은 전등사 은행의 품질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다른 은행을 구해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분량을 채우더라도 품질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다 먹었다고 관리들이 트집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욱 탄압할 것이 분명하였다.

노스님은 백련사에 있는 추송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추송 스님은 도력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며칠 후 전등사에 온 추송 스님은 노스님 등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 3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곧 전등사 일대에 '전등사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두 배나 더 열리게 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추송 스님의 3일 기도를 지켜보았다. 그중에는 관리들도 있었다.

관리들은 노스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요. 혹시 나라에 공물을 바치기 싫어서 우리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은행이 더 열릴 수가 있겠소." 비웃는 순간, 관리들은 얼굴을 감싸고 땅 위에 나뒹굴었다. 그들의 눈은 얻어맞은 것처럼 퉁퉁 부었다. 이 소문으로 구경꾼은 더욱 늘어갔다.

드디어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다. 막바지에 이르자 추송 스님은 부처님께 발원하였다. "3일 동안 지성으로 기도한 대중은 앞으로 백 년이고 천 년이고 전등사 은행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도록 기원하나이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였다. 바로 그때 때 아닌 먹구름이 전등사를 뒤덮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우박과 비가 무섭게 내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땐 추송 스님은 물론 노스님과 동자승까지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 세 분의 스님으로 오셨다고 믿었다. 그때부터 전등사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이후 관가에서는 전등사 스님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다.

얼마나 불교 탄압이 심했으면,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그 사연을 전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불교 탄압의 와중에서도 전등사에 훌륭한 스님이 계셨다면, 추송 스님 같은 법력을 가진 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다면, 그때 그러한 시대 분위기가 은행나무를 통해 전해졌을 수 있다.

〈불교학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